

이재정(전 통일부 장관) 1차 구술

1. 구술자: 이재정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4월 27일
5. 구술장소: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6. 구술분량: 06분 40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2002년 대선후보 단일화 성사과정

구술자 :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 후보 측에서 정몽준 측에서 수정 제안한 걸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걸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안에 차이가, 이제 이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루라도 늦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훨씬 오래 전에 한 이삼(2~3)주 전에 준비한 게 그 목사님들 한 삼백(300)명 모시고 이 저 조찬기도회 하면서 그 조찬기도회에 노무현 후보를 모시자,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 계획을 딱 돌려서 그날 모임, 아침 일곱 시 세종문화회관 모임에 가는 겁니다. 아. 그날 노무현 후보의 얼굴이 참 초췌했어요. 펍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 아침에 헤드테이블에 과거 민주화운동 했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 앉아계신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저 노무현 후보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한 말씀 하시는 순서가 됐는데. 난 헤드테이블에 앉지 않고 딱 데 앉았는데, 아 올라가시더니 대뜸 첫마디가 내가 오늘 참 평소에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의 대선배님 되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번 단일화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단일화해야 된다’, ‘내가 안 돼도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니가 안 돼도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참 섭섭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내가 되는 단일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 듣고 보니까 확실히 단일화를 어떤, 누가 되든 해야 되는 게 옳다는 걸로 오늘 내 마음에, 마음을 잡았다는 뜻의 얘기를 꼭 장황하게 인제 하였고.

그리고 돌아와서 본부장회의를 하는데 본부장회의에서도 노무현, 노무현 후보는 뭐 당시에 그냥 말씀 듣고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꼭 발언을 하는

데 대부분 다 (정몽준 후보 측이 제안한 단일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부정적이었죠. 부정적인 이유가 ‘역사의 이거 죄인이 되는 거다. 선거도 못해보고 이렇게 물러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여당이. 그러기 때문에 이 여당의 맥을 잇고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걸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냥 간다. 정몽준하고의 단일화는 없는 일로 하고 가자’ 그 얘기가 아주 대세였죠. 뭐 몇몇 사람 막 눈물 흘리고 뭐 그러면서도 어쨌든 (단일화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주장)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께서 딱 일어나서 ‘단일화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단일화를 안 하고 당선되는 것보다 단일화를 하고 떨어지는 편을 내가 오히려 택하겠다’ 그 얘길 하시고 바로 일어서서 그냥 텔레비전 인터뷰로 가셔서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발표를 그냥 하신 거죠. 그때 참 비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단일화에 이기게 되는데 단일화 투표(여론조사)를 하는 날, 그 전날 여론조사 결과가 보고되는데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있나요? 전국에 이천(2,000)샘플. 만(10,000)명 가운데 한명 아니겠습니까? 그 어디다 선거운동을 하고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걸 얘기한들 그게 그건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냥 쪽 힘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내가 제안을 했죠. ‘오늘 주일날이니깐 우리가 교회도 못가고 그러는데 올라가서 예배나 좀 봅시다.’ 그래 내가 제안을 해서 그때 몇 층이던가, 거기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자,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내가 설교의 얘기를 좀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그때 저로서 상당히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훌쩍거리기 시작하더니 모두가 우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그 눈물의 기도가 됐어. 그 현장이.

하여간 이 역사를,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그거(아론과 모세)였었어요. 아론의 경우는 자기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 살았다면 모세는 그 민족의 해방과 민족의 미래를 가지고 꿈꿨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정몽준은 마치 아론과 같은 세계고 우리 노무현은 모세와 같은 해방자다. 그리고 이 민족사를 돌아봐라,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로 여기까지 왔냐,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면서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바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냐, 뭐 좌우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열한 시 반에 우리가 그 대략 통보를 받았죠. 공식 발표를 하는 것이, 쌍

방 캠프에서 공식 발표하는 것이 이십오(25)일 열두신 가에 아마 하기로 해서. 아 하여튼 그때도 노무현 후보는 어디 가게신지 잘 찾을 수가 없었고 아무튼 노무현 후보 없이 우리가 단일화 된 걸 그, (단일화)하게 된 거죠. 아 그건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하나는 우리가 이기고 하나는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꿈같은 일이었어요.

■ 구술자 주요 이력

- 1944. 충북 진천 출생
- 1969.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 1971. 대한성공회대학교 성미카엘신학원 졸업
- 1984.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대학원 종교학 석사
- 1988. 캐나다 토론토대학교대학원 신학박사

- 1972.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사제서품
- 1972. - 1980. 대한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서기
- 1977. - 1980.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주임사제
- 1977.06 - 1981.10 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이사
- 1988.09 성공회대 부교수
- 1988.10 - 1994.08 성공회신학대 학장
- 1994.09 - 2000.05 초대, 2대 성공회대 총장
- 1997.11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이사장
- 1998. (사)남북농업발전현력민간단체 이사장
- 1999.03 국민정치연구회 이사장
- 1999.09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 1999.09 국민의회의 신당창당 발기인
- 1999.11 - 2000.01 새천년민주신당 총무위원회 위원장
- 2000.01 - 2000.04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 2000.05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전국구)
- 2000.12 새천년민주당 연수원 원장
- 2002.06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교육특보
- 2002.09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본부장

2002.12 새천년민주당 당개혁특위 위원
2003.10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3.11 열린우리당 창당
2003.11 열린우리당 총무위원장
2004.10 - 2006.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장관급)
2006.12 - 2008.02 제33대 통일부 장관
2009.09 - 성공회대 석좌교수(2012년 현재)

2000년 12월~2001년 11월 새천년민주당 연수원장 시절 16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당원 교육 강사로 활동하던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교육특보, 유세본부장 등을 맡았다. 참여정부 들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거쳐 2006년 12월부터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남북정상회담 진행과정에 참여했다.